

韓國服飾語와 滿洲服飾語의 比較研究

金 鎮 玖
漢陽大學校 衣類學科

A Comparative Study of the Korean and Manchu Costume Terminologies

Jin Goo Kim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 Yang University

目 次

Abstract

I. 序 論

1. 감토, 감투
2. 다로기(多路岐)
3. 마흐래
4. 부채(扇)

5.兀刺와 오로시

6. 쿠루메

II. 服飾語

III. 結論 및 要約

參考文獻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Korean and Manchu costume terminolog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some of the Korean costume terminologies were derived from the Manchu costume terminologies. It was also found that some of the Korean and Manchu costume terminologies we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It also appeared that Korean, Manchu, and Mongolian costume terminologies were heavily influenced by the Chinese costume terminologies.

I. 序 論

우리나라는 地域的 特性 때문에 古來로부터 아시아 諸國과 社會的·文化的·人的·交流를 가져 왔다. 그러므로 制度, 言語, 風俗의 面에 있어서 여러나라와 민족으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그 中에서도 지리적으로 국경이 근접하여 있는 민족들과 더욱 빈번한 접촉을 하고 밀접한 국제적 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中國이라는 中心文化는 주변국가들에게는 물론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漢文化를 한때 支配하고 다스렸던 蒙古族과 滿洲族의 영향 또는 우리文化 要素에 많이 남아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복식어와 만주 복식어를 비교하여 봄으로써 한국복식어와 만주 복식어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漢語와는 이들 服飾語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몽고어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찾아 보고자 한다.

II. 服飾語

1. 감투, 감투

漢語 帽子를 만주어로 '감투'라고 하였고 李朝語로는 '감투'라고 하였다(同文 類解上 55). 小帽子를 감투라고도 번역하였다(譯上 43).

만주어 '감투'란 말은 帽子 종류 中에서도 特別히 氈帽를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이 발견된다(漢清文鑑卷十). 감투는 現在 경상북도, 충청남북도, 전북, 강원 지방의 毛帽子를 뜻하는 方言으로 남아있다.

2. 다로기(多路岐)

다로기라는 말은 바로 앞 兀刺條에서 이미 언급된 바이다. 다로기는 漢語의 鞞子鞋를 일컬으며 만주어로는 '웨타머 굴하' 또는 '우라' 라고 불려지는 것이다(漢文 332¹⁾). 다로기는 버선목과 같이 목이 있는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가지 뜻은 가죽버선인 것으로 나타난다. 洪良浩의 「北塞記略」의 孔州(慶興) 風土記條에 「地宜麻織細布, 不蠶桑, 衣袴用狗皮, 襪用牛革長沒脛, 名曰多路岐, 不美鞋」, 라 있어 신과 같은 用途로 신는 신 代用의 목이 짧은 가죽 버선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로기라는 말은 平北地方과 咸南北 地方의 方言으로서 목이 얇은 牛皮로 만들어진 短靴를 말하는데 地方에 따라서 몇가지 發音이 있다. 그것들은 다루기(平北), 도레기(咸南北), 도로기(咸南北), 도록신(咸北), 도리기(咸北)등이다.

「華夷譯語」 韃靼譯語條에 鞋를 「察魯黑」이라고 있는데 다로기는 이 韃靼語와 關係가 있을지도 모른다. 察魯黑은 漢音으로 'chaluha', 'chaluheh'라고 발음된다.

'Chalu' 는 '다루'이고 ho, heh는 靴, 鞋이거나 아니면 원래의 音은 chalok 또는 doluk, dalok일지도 모른다.

도로기, 다루기 등은 만주어에서 起原된 語라고 한다(小倉進平, 朝鮮語方言의 研究 下, 昭和 19, p.367).

다로기의 語源은 라틴어에 있다고 하겠다. 라틴語로 발목을 'talus'라고 하며 'talaris'는 다리의 한 형용사이다.

L. talus > VL. tala로 되었다.

우리말의 다리(脛, 脚)이라는 말도 라틴어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韃靼語, 察魯(黑)나 '다로기'는 'tala'나 'talaria'에 相應되는 말이거나 이에서 由來된 말을 寫音한 것이라 생각된다. 'Talaria'란 <'trilasris' < 'talus'에서 起源된 말인데 날개 달린 구두 샌달을 말한다.

위의 方言에서 '다로기'라는 말은 우리나라 北部地方에만 있는 方言이라는 것을 볼 때 그 根源이 만주지역이었음이 확실하다.

3. 마흐래

한국복식어에 몽고 복식어의 비교 논문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마흐래'란 말은 몽고, 만주, 한국에서 共通의 同音同意語로 使用되었는데 漢語의 冠을 번역한 것이다. 마흐래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앞 논문의 마흐래를 참조하기 바란다.

4. 부채(扇)

부채, 부채라는 우리말은 만주어 'vicci'(부채), Dravida어 'Putai'(부치다)와 관계가 있는 말이다. 부채는 만주어 vicci에서 온 말이라고 생각된다.

5. 兀刺와 오로시

兀刺라는 말은 몽고어로 襪子 즉 버선을 意味하는 말이다. 兀刺靴, 兀刺鞋, 靴鞣鞋, 烏拉履 등의 말 앞에 있는 兀刺, 靴鞣, 烏拉는 모두 같은 품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兀刺라는 말은 漢語, 韓國語, 몽고어, 만주어 등에 같이 보인다. 그런데 漢語의 兀刺와 兀刺靴는 각각 두로기 또는 두로기휘라고 해석하고 있다.

'오로시'라는 말은 咸北 國境地方에서 革靴의 一種을 일컫는 말이다.

'오로시'는 兀刺鞋 兀刺靴 烏拉履 靴鞣鞋 등의 말에서 由來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靴鞣鞋(우라시에)는 滿洲 華北地方에서 以前에 勞動者들이 신었던 신발로서 獸皮一枚를 잘라서 만든다. 발을 넣는 곳에 주름을 잡아서 주름 부분을 끈으로 묶어서 신는 신발이다. 이것은 신발의 原始形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이라고 한다(內田道夫, 北京風俗圖譜 I, 昭和 39, p. 146).

'오로'라는 말은 만주어로 麻를 뜻한다. 만주어 '오로' 사부는 麻鞋 卽 메토리이다. '오로시'의 語源은 卽 麻鞋라는 뜻의 '오로'(麻)+시(shii, shye, 鞋, 신)의 複合語라고 解析된다. 이와 유사한 例는 골로시와 같은 合成語에서 보인다. 골로시는 외래어인 골로(고무란 러시아어)+시(신)이다.

6. 쿠루메

쿠루메 (두루마기)는 咸南北과 平南北에 걸쳐서 여러 비슷한 품으로 發音되는데 쿠루메, 쿠루메기, 쿠리매 等 ㄱㅍ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ㄱㅍ이 들어있는 위의 말들은 주로 咸南北과 平南北에서 使用되는 말이고 후루매, 후루마기, 후루막, 후루매기, 후르메기, 후리매 等은 咸

<丑 1> 漢語, 李朝語, 滿洲服飾語의 比較

漢 語	李 朝 語	滿 洲 語
粉	粉	분(同文) 뷘(漢淸)
胭脂	胭脂	반
簪子	빈허	시빙쿠 또는 채스(同文)
鬢釵		채스
首帕		슈반
頂子	당즈	딩스
網子	망진	왕스
遮臉皮(皮馬虎)	블씨	마후
補子	홍비	푸스
褂子	쿠리애	우루어
襖子	들씨	참치(同文)
襯衣	속웃	참치(漢淸)
短皮褂	갓동웃	더허러
皮袍	둔즈	다후
皮端罩	둔즈	다후

漢 語	李 朝 語	滿 洲 語	蒙 古 語
帽子	감토	감투	
斗蓬	닐쿠	너리쿠	장치
氈褂子	담유삼 웃	장치	커버넉
襪子	플	후	
衣裳	웃	어투쿠	
衣服	--	어투쿠 어두	

<丑 2> 珍寶

漢 語	李 朝 語	滿 洲 語
玉	-	구(球의 사용?)
珊瑚	--	슈루
琥珀	--	후바
玻璃	버리(同文)	보리(同文)
	--(漢淸)	보로수(漢淸)
蜜蠟	미라	미라
	밀화(蜜花)	
寶石	-	본시
玳瑁	--	대미
玳瑁	파란	파라수(漢淸)
菩提子		보디수

<표 3> 彩色

漢語	李朝語	滿洲語	蒙古語
靑	아청, 야청	야친	
鴉靑	아청, 야청	야친	
藍	--	라문	

<표 4> 其他

漢語	李朝語	滿洲語
粉子	무리 분즈	본스
卧單	큰보	와단

<표 5> 漢語, 李朝語, 滿洲語, 蒙古服飾語의 比較

漢語	李朝語	蒙古語	滿洲語	日本語
帽	마흐래	마라가 又 마흐래	마라라 又 마흐래	
褂子	쿠리매	쿨머	쿠루머	고로모
搭護(다후)	담호	다후	다후	
靴	구두(現)	구들	굴함	구쓰
鞋子	신	샤발	사부	
齊肩短褂	갓동옷	더저래(몽유보)		더허러(漢滿)
短皮褂	갓동옷			더허러(同文)
搭護	더그래			

<표 6> 布帛

漢語	李朝語	滿洲語	蒙古語
粧段	--	장단	종돈
紬子	비단	쥬스	쥬스
紡紬	방스쥬	방스	팡스
綾子	릉(漢滿)능 (同文, 몽유)	링스	링스
絹子	견(동문) 김(몽유)	칸스	칸스
羅	노, 라, 김(동문)	로	로
紗	--	샤	샤
綿紬	면쥬	면쥬	미천
三梭布	삼승	삼수	
夏布	외(몽유)		조둥(몽유)
葛布	--	조돈	
祁陽葛		카양조돈	

漢 語	李 朝 語	滿 洲 語	蒙 古 語
三梭布	삼승(三升)	삼수	실컻
絲	와올실	실기	
線	실		
細藍布	—	시란	
시란부			
藤麻	어저귀	키마	
킹마			
機頭	화두	하투	
가투			

南新興의 후루매를 除外하고는 경기, 강원이남 지방과 제주도에서 사용되는 方言이다. 즉 南北地方에서는 北部地方의 ㄱ가 ㅎ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쿠루매, 쿠리매 등은 만주어 쿠루머, 몽고어 쿨머와 같은 것이다.

李朝시대의 쿠리매와 비슷한 품이 咸北部 地域에 方言에 남아있다.

우리나라의 쿠리매, 쿠루매 등의 말이 몽고어, 만주어 中 어느 쪽에서 傳하여졌는지는 확증하기 어렵다. 학자에 따라서는 만주어에서 유래하였다고도 한다.

한국어, 만주어가 漢語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例와 漢語, 韓國語, 滿洲語, 蒙古語와의 관계를 비교하면 위의 표와 같다.

Ⅲ. 結論 및 要約

本論에서는 論議한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복식어와 만주 복식어는 同質的이고 유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 복식어의 상당수는 몽고어에서와 비슷하게 만주 복식어의 영향을 받았음이 확인되었으며 한국어, 몽고어, 만주어가 같은 복식어 또는 유사한 복식어를 가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만주 복식어의 영향은 우리나라 北方 지역의 방언에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투, 부채, 후리매 등은 日常服飾語로 광범하게 使用되었다.

만주어 中에서도 特히 布帛, 珍寶 등의 服飾語는 漢語의 영향을 현저하게 많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몽고와 한국 복식어에서도 같이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中國의 元朝와 淸朝는 몽고족과 만주족이 각각 통치하였던 點과 또한 지역적 인접관계에도 있을 것이고 中國의 王朝는 異民族이 支配했던 때가 있었을지라도 中國의 찬란한 文化要素는 몽고족과 만주족의 일상생활은 물론 異民族이 그대로 계승 발전시켰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더욱 重要的 이유는 아시아 대륙에서 中國이라는 나라가 中心文化였고 그 文化 要素들을 주변국가에서 그들 나름대로 수용하고 변용한 결과가 만주, 몽고, 한국 복식어에도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參考文獻

1. 강길운, 고대사의 비교언어학적 연구, 세문사, 1990.
2. 강길운, “길약어와 한국어의 비교 연구 II”, 수원대 논문집, 1984. pp. 75-100
3. 김동욱, 이조전기 복식연구, 한국연구원, 1963.
4. 김방한, 어원론, 민음사, 1990.
5. 김방한, 한국어의 기원, 민음사, 1983.
6. 노걸태 언해
7. 동문유해
8. 동언고략
9. 몽오유해
10. 몽어유해 보
11. 박통사 언해
12. 방학균, 한국방언 사전, 현문사, 1978.
13. 사성통해
14. 성호사설
15. 신기철, 신용철, 국어대사전, 삼성출판사, 1987.
16. 악학궤범
17. 어록해
18. 왜어유해
19. 자류주석
20. 청장관 전서
21. 홍몽자화
22. 小倉進平, 朝鮮語 方言の 研究上, 下, 岩波書店, 昭和 19年.
23. Hansen, H. Harald. *Mongol Costumes*. København, 1950.